

임산물 시장 7조원대...전남 임가소득 높다

2018년 3906만원 ... 전국 평균보다 7.1% 많아

고흥 치나무·장흥 전표고·광양 고로쇠 주산지 1위

광주·전남 나무시장 5년새 5억원대로 늘어

'배란다 정원'을 만들거나 직접 과일·나물을 재배해 먹는 가정이 늘면서 국내 임산물 시장이 7조원대로 성장했다.

13만 산림조합원을 거느린 전남지역 임가소득은 매년 성장세를 보이며 4000만원에 육박했고,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3958억원)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20일 산림청 '임가경제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남지역 임가소득은 3906만원으로, 전국 평균(3648만)보다 258만원(7.1%) 많았다.

전국 8개 도와 비교하면 4번째로 높은 소득을 기록했다. 전북을 포함한 전라권 임가

소득은 2016년 3389만→2017년 3719만→2018년 3963만으로, 매년 200만~300만원 넘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평균 임가소득도 2016년 3359만→2017년 3459만→2018년 3648만원으로 오름세다.

전남지역에서 지난 2018년 생산된 용재·약용식물 등 임산물은 8613억원 상당이었다.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생산액이다. 전남은 단기소득 임산물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3958억원으로, 경북(6439억)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단기소득 임산물 주산지 1위를 차지하

■ 전라권 임가소득 추이 <단위:만원>



는 곳은 한 해 74억2800만원 상당 치나무를 생산하는 고흥군과 ▲장흥군 '전표고' (63억7900만) ▲광양시 '고로쇠' (21억2200만) ▲장성군 '잔디' (247억4000만)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달리 1위를 놓친 지역도 있다. 지난 2017년 36억원 상당 작약을 생산한 장흥군은 이듬해 경북 영천시에 1위 자리를

빼앗겼다. 구례군도 고사리 주산지 자리를 경남 하동군에 내줬다.

청정생활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1억원 대였던 광주·전남 나무시장은 5년 새 5억 원 대로 경증 뛰었다.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해 2개월 동안 운영한 '나무시장' 판매액은 5억600만원으로 지난 2015년 1억3500만원 보다 4배(275.3%) 가까이 증가했다.

이날 전국 산림조합 167곳에서 동시에 열린 '나무시장'은 4월 말까지 운영된다.

'나무시장'은 광주시 광산구 수원동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 인근에서 두 달 여간 운영되며, 200여 종의 수목을 10% 정도 할인 가격에 만나고 '목공예 체험' '화분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해양조·서경덕 교수 수익금 일부 '독도 홍보'

독도 라벨 부착 1병당 10원 적립

보해양조와 '한국 홍보대사' 서경덕 교수가 독도 홍보에 나섰다. 우리 땅 독도를 알리기 위해 독도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를 독도 홍보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20일 독도 홍보와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부터 독도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보해양조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의기투합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독도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생산해 판매 중이다. 국내외 소비자들에 독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독도의 날을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판매되는 수출 제품에 독도라벨을 부착했다.

독도라벨에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독도'(Dokdo, the first place of sunrise in Korea)라는 문구와 독도를 상징하는 섬과 갈매기 이미지가 들어간다.

보해양조는 이 독도라벨이 부착된 제품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모아 독도 홍보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 보해북분자주 등 독도라벨이 부착된 수출 제품 1병당 10원을 적립금으로 모을 예정이다.

현재 독도라벨이 부착된 보해북분자주와 순회 막걸리 등은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한인들은 물론 현지인들에게 관심을 얻고 있다. 해외에 거주 중인 한인들은 독도라벨 제품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독도캠페인에 호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물론, 외국인 소비자들에게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활동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독도 캠페인을 함께 진행 중인 보해양조와 서 교수는 차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전국 청년들과 독도를 직접 방문하는 '독도 홍보 탐방단'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임지선 대표는 "지난 1950년 설립된 보해양조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토종 한국 기업으로 우리 땅 독도를 알리기 위해 독도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며 "보해가 만든 좋은 술에 우리 영토를 알리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경덕 교수는 "한식에 관심이 많아진 외국인들이 한식당에서 한국술을 많이 즐기고 있는 추세로, 이때 자연스럽게 독도를 노출한다면 독도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유학생들 및 재외동포들이 한식당에서 외국인들과 술한



잔 할때 독도를 간략하게 홍보할 수 있는 작은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차 광주3공장 봉고라인 24일 정상 가동

코로나19 여파에 중국 내 협력사로부터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 등 부품 수급 차질을 빚어 가동을 중단했던 기아자동차 광주 3공장 봉고차 생산라인이 오는 24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20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협의 결과 2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는 광주 3공장 봉고트럭라인을 24일부터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앞서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10~11일

군수 라인을 제외한 1·2·3공장 전체 생산라인을 멈췄던 바 있다.

1·2공장은 중국 현지 부품 협력업체의 생산이 재개되면서 각각 12일과 14일부터 정상 가동됐다.

하지만 1일 400여대의 봉고트럭을 생산하는 3공장은 부품 수급 차질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최장 12일간 생산이 중단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봄 신상품 전면 배치 광주·전남지역 주말 낮 최고기온이 13도 안팎으로 올라 포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일 ㈜광주신세계는 6층 골프매장에 봄 신상품을 전면 배치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95.50 (-14.84) ↓ 금리(국고채 3년) 1.23 (-0.05)
- ↓ 코스닥 681.66 (-3.12) ↑ 환율(USD) 1198.70 (+9.40)



순천 '용당 남양휴튼 하늘정원' 오늘 홍보관 오픈

499세대 최첨단 IOT 인공지능

순천 '용당 남양휴튼 하늘정원'이 21일 주택홍보관을 오픈한다.

용당 남양휴튼 하늘정원은 전남 순천시 용당동 288-1번지 일대에 총 499세대(예정)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신 평면을 접목해 면적 대비 활용공간을 극대화했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은 중소형 평형대(전용면적 59㎡, 84㎡)로 구성돼 예비 입주자들의 실용성을 고려했다.

단지 특화로는 세련된 외관과 희소성을 겸비한 스카이 브릿지로 하늘을 누린다는 자긍심과 만족감을 이끌어 냈으며, 봉화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숲세권 단지로 각광받고 있다는 게 남양휴튼 측의 설명이다.

최첨단 IOT 시스템 인공지능 단지로 각종 생활정보와 음악, 키즈,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 가까운 거리 동천에는 자연 하천 개

발에 따른 산책로가 마련돼 있고 봉화산 둘레길과 순천만 국가정원 등도 인접해 다양한 여가생활도 가능하다.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용당초, 효산고, 팔마고를 비롯해 향림중과 순천대로 통학도 편리하며, 순천일반산업단지도 도보 10분, 순천시청 등은 차량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남양휴튼 측은 단지 인근의 용당교를 통해 강변로와 중앙로를 이용하기 쉬운 도심권으로의 진입이 수월하다고 강조했다.

용당 남양휴튼 하늘정원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상태로 우리자산신탁사가 자금관리를 맡아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까지 더했다"며 "인근 아파트 대비 공급가가 비교적 저렴해 청약통장 필요 없이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당 남양휴튼 하늘정원' 주택홍보관은 순천 석현동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주택홍보관에서 상담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정기총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이서길)는 20일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중제 광주행정부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김영운 중앙회 회장, 협회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 기성실적이 전년 대비 12% 상승한 3조21억원을 달성해 광주시회 창립 이후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 2010년부터 1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389가구의 집수리를 도왔다.

이서길 회장은 "집수리 봉사를 비롯해 사랑의 김장나눔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실시해 전문건설인으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 건설공사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건설인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전문건설업계 권익신장 및 업역 증진에 공헌한 광주 5개 자치구 의회 건설산업관련 분과위원회 위원장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관계 공무원, 종합건설사, 협회발전 유공회원사 등 40명을 포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